

(주) 심정민 융합 교육 연구소-하늘을 나는 그림책

작성자: 심정민 대표

▣ 본 자료는 말하기식으로 기록된 자료입니다.

책을 읽지 않는 아이!

책을 읽지 않는 아이!! 무척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는요....

책을 스스로 보지 않는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처음 책을 접할 때의 습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책을 너무 일찍 보기 시작합니다. 3세 이전의 책은 놀잇감처럼 사용합니다. 촉감책, 팝업북, 하드커버&페이퍼 북 등등 이런 기능성을 가진 책들을 보면서 단순히 시각적 자극을 통해 사물에 대한, 주변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바라보기로 먼저 두뇌를 움직이게 합니다. 시각적으로 자극을 받고 본다로 시작해서 생각한다고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책 또한 이 방법과 순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그림을 본다. 눈으로 살살이 본다가 잘 되면.... 당연히 머리는 움직이게 되어 있고 이에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부모들이 책을 처음 접해줄 때 우리는 그저 시각적 교양교육의 중요성도 이러한 교육이 존재한다는 것도 모른채 그저 글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히려하다보니 우리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때도 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글만 읽어주면 책을 다 본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스스로 읽지 못하고 책을 스스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아이가 책은 혼자서 볼 수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완전한 문장과 완벽한 글을 엄마 아빠가 읽어주고 아이는 듣는 입장이자보니

귀만 열린 상태에서 완전한 글을 듣기만 한다는 것은 흥미도 전체의 내용을 풍부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이는 계속 책을 읽어달라고만 합니다. 읽어주지 않으면 혼자 빨리 책장을 넘기며 그림도 대충보다 끝나고... 그렇게 혼자보면 들리는 이야기 보이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손가락만 움직이며 책장을 넘기다보니 아이는 당연히 흥미가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책을 싫어하는 이유는 취학전, 유아기에 책을 어떻게 접했느냐가 무척 중요합니다.

그 책보는 습관이 잘 못 들여져 아이는 책을 싫어하게 됩니다.

듣기만 하는 아이는 흥미가 있으면 관심폭발, 흥미 없으면 딴짓을 합니다.

이렇게 책보기는 반복이되고 책을 보는 이런 자세를 보며 많은 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집중력도 이해력도 책도 싫어하고 기억력도 없다고만 판단하며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처음 책보는 환경을 제공하는 부모의 잘못입니다.

책을 읽어주고 난 후 아이의 생각을 묻는 상호작용을 나눈 것도 아니라면.... 더더욱 책에 대한 흥미는 없을 수 밖에요.

책을 스스로 볼 수 없다면 8세 이후에 꼭! 필요한 자기 주도 학습은 거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컨설팅 어떤 스파르타식 자기 주도 학습력을 교육 시키려해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유아기부터 책을 보는 이유는

평생 함께 해야 하는것도 책이고

전 세계적으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학습해야하는 10년 기간 동안 봐야하는 것도 책이다 보니 책은 늘 가까이해야합니다. 그래서 정말 흥미롭게 봐야합니다. 책을 보면서 단순하게 글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을 풍부하게 이해하고 그 글에서 무엇인가를 더, 더 발견해야합니다. 그래서 책을 보게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줘야 합니다.

책을 읽지 않는 아이!! 초등학생이 되어 이를 바꾸기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글을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보면서 풍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편하게 그림을 보면서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우리의 생각을 그림을 보면서 그림과 그림을 마음대로 이어 이야기를 지어내듯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글의 내용과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시각적인 관찰과 탐색, 탐구력을 먼저 자극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깊이있는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깊이 있는 사고란... 분석적이고 전후 관계성을 따지면서 문제를 찾아내고 결론을 도출하는 다중적 해석의 과정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싫어하는 아이! 책을 좋아하게 하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걸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책을 잘못본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것을 개선시키기란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아주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고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것!

이 과정에 아이의 관찰력과 탐구력은 굉장히 좋아지고 더불어 집중력과 몰입력 또한 함께 좋아집니다. 3단계로 향상되는 것은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나는 그림책 수업의 가장 도입에서 중요한 부분과 수업에 대한 성과치를 높이

고 싶다면 꼭! 그림을 함께 살살히 보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상호작용의 시간을 게을리 하지 마십시오.

너무 별거 아닌 것 같고 이거하면서 시간 보내도 되나? 라고 생각하는 이 기본이!!

아이를 꼭! 변화 시킵니다.

교육은 기본을 충실해야합니다. 기본이 충실한 교육은 절대 변질이 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저 새롭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쁘게 쫓아 수행하려고 마음을 바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기본적인 것을 우리 교사들이 충실히 하고 있는지 살피십시오.

책을 싫어하는 아이도!

관찰력과 탐구력 없는 아이도

집중력과 몰입력 없는 아이도

스토리텔링이 부족한 아이도

깊이 있는 사고력이 발휘되지 않는 아이도

위 기본적인 방법을 수업 중에 꼭! 중요하게 수행한다면..... 우리 교육에 성과는 60%이상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하늘을 나는 그림책에 다니는 아이들에게 성과가 없다면

지금 우리 교사들이 기본교육에 얼마나 충실한지를 체크해보십시오.

그리고 책을 싫어하는 아이로 고민하는 엄마가 있다면

싫어하는 원인도 알려주고 책을 깊이 있게 읽어내고 책을 충분하게 자기 주도학습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세가 향상 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다라는 자부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